

# 롯데, 군 장병 위해 전방위 지원



1 세븐일레븐이 '2020 해군순항훈련'에 간식박스 등을 후원했다. 2 지난 2018년 청춘책방 공공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공군 제8355부대 장병들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군 장병 헌신에 보답

롯데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장병 및 군 가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먼저 롯데지주, 롯데제과, 코리아세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검역 지원, 백신 수송,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병사 2천여 명에 총 5천500만원 상당의 간식 박스를 전달했다. 간식 박스에는 롯데제과의 '간식 자판기'와 음료 제품 등이 담겼다. 롯데는 사회공헌 홈페이지(csv.lotte.co.kr)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아 간식 박스와 함께 전달했다.

롯데지주는 육군본부가 올해 신설한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배우자를 대상



으로 연간 100명을 선발, 상금과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지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후방 각지와 해외 파병지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의 자녀 1천여 명에게 과자 꾸러미를 선물하기도 했다. 6월부터 1년간, 휴가증을 소지한 휴가 장병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역 간부 및 군무원, 사관생도, 간부후보생 학군단 및 동반인도 5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2013년부터 현역병 및 1~2년 차 예비군, 군무원 등에 롯데시네마 티켓 및 콤보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성복 롯데지주 CSV 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 및 가족들에

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장병들의 생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춘책방, 해외 참전용사회관 건립

롯데는 군과 장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2016년부터 육군본부, 구세군과 협력해 진행해온 '청춘책방'이 대표적이다. 청춘책방은 최전방 GOP, 해안 소초 등에 근무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독서카페의 형태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롯데는 지난 6년간 육군 51개, 공군 6개 등 총 57개의 청춘책방을 지원했다. 올해는 8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2개 등을 활용해 만든 청춘책방은 도서 1천여 권이 비치된 책장과 소파, 개인용 독서 책상이 비치된 공부방 공간과 어학 청취 및 음악 감상 존, 카페 테이블의 아늑한 휴게 공간으로 구성됐다. 전자책 단말기(e-book)도 비치해 최신 도서를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롯데는 정전 60주년이었던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한국전쟁 해외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 활동인 해외 참전용사회관 건립 사업을 지원해왔다. 롯데는 약 28억원의 사업비를 후원해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3개 국가에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 ⑦